

11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고 의견을 펼쳐 봅시다.



산양이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지 않아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할까?

설악산은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으로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에 걸쳐 있다. 설악산에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설악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다. 이 케이블카는 설악동 소공원에서 권금성까지 약 1.1km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한 번에 최대 5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케이블카 외에 또 다른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양군청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 지구의 하부 정류장에서 설악산 끝칭 상부 정류장까지 3.5km 구간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양군청은 환경부에 공원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설악산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을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설치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2012년과 2013년에도 추진됐지만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허가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 양양군 오색 지구는 국립 공원, 천연 보호 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 지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 구역, 백두 대간 보호 지역 등 5개의 서로 다른

보호 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양군청은 ‘지역 경제와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약 1520억 원으로 예상했다.

양양군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등산객들이 등산로로 다니는 것을 제한해 오히려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또 케이블카 운영 수익의 15%는 환경 관리와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고 말하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의 반대도 거세다. 환경 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이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인 산양과 하늘다람쥐, 200년이 넘는 나무들의 서식지임을 확인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설악산 정상에 수많은 관광객이 다니게 되고, 환경이 파괴돼 야생 동물과 식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제 개발이 먼저냐, 환경 보존이 먼저냐를 두고 양양군청과 환경 단체의 뜨거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할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강원도 양양군 오색 지구의 케이블카 설치에 몇 번 추진되었나요?

2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구역에 사는 멸종 위기 동물은 무엇인가요?

3 오색 지구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양양군청과 환경 단체의 주장은 각각 무엇인가요?

2 양양군청과 환경 단체가 주장하는 의견의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양양군청)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 단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3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허가:

• 파급:

• 훼손:

4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견을 쓰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내 의견	나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 반대)합니다.
내 의견에 대한 이유	
친구들이 말하는 내 의견의 문제점	
내 의견에서 보충할 점	

5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어디까지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써 봅시다.

지나친 관광 편의 시설, 중국 곳곳 훼손

중국에는 관광 편의 시설을 지나치게 개발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 많다.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로 유명한 후난성과 장자제(장가계)는 엘리베이터가 완공된 뒤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신음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장자제(장가계)

중국 3대 명산 중의 하나인 황산, 후베이성 은스 협곡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세계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되었다.

중국 정부와 관광 기업은 이러한 편의 시설로 인해 많은 관광 수익을 얻고 있다며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대자연의 풍경을 기대하고 갔다가 수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사람 뒤통수 구경만 하고 왔다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수천 년 역사 유적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곳곳에 간직하는 중국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론 편의 시설 설치로 인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대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인공적인 개발은 자연과 역사가 주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때로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기까지 한다.

과연 자연은 어디까지 개발하는 것이 좋을까?



배움 다지기

-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했나요?

